

로타리안의 자부심과 행복한 기부



장세호 총재
국제로타리 3650지구

로타리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조직입니다. 냉혹하고 외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름다운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나아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지도자 되는 분들과 함께 봉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들 자신을 더욱 더 성숙한 존재,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가치 높은 존재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로타리는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아름다운 “인생행복” 동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타리는 어떤 조직인가?

로타리는 지난 100년동안 어마 어마한 일을 해 왔습니다. 47억불의 기부금을 모아 37억불을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위해 써왔습니다.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들에 속한 35,000개 이상의 클럽들과 120만명의 로타리안들은 각각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로타리 조직을 통해 글로벌 봉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 및 분쟁예방과 해결, 질병 예방 및 치료, 수자원 및 위생, 모자보건, 기본교육과 문해력,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이렇게 6대 초점분야에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봉사프로젝트가 (1)Effectiveness(정말 효력이 있는 문제 해결책인지), (2) Measurability(효력의 측정가능성), 그리고 (3)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criteria(기준)에 맞는지 명확하고 공평한 판단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효율성과 현실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봉사가 실제 일어날 지역의 클럽회원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협업의 체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 모든 에너지의 집중과 관리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로타리의 글로벌 봉사 시스템이자 또한 차별화된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이 이루어 지기에 우리가 기부하는 자금의 91%가 실제 봉사 대상자 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타 봉사조직들은 50%를 실제 봉사에 쓰기에도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 국제로타리는 국제 평가조직인 Navigator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 업적을 이루어 나가는 조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제1위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로타리의 가치

로타리는 로타리강령과 4가지 표준을 중요시 여기는 조직입니다. 로타리강령은 우리 로타리안들이 봉사의 이상을 사업의 모든 활동분야에 적응시키어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표준은 어떻게 강령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HOW로서 진실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선의와 우정을 더하면서 모두에게 유익한 판단과 행동을 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헌이라 함은 먼저 나 자신이 이 사회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나의 모든 활동이 사회에 좋은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과 생명의 가치가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타리 강령을 실행하여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나, 우리가 클럽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봉사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로타리 봉사의 순위

로타리의 5대 봉사는 클럽봉사, 직업봉사, 사회봉사, 국제봉사 그리고 청소년봉사입니다. 우리 로타리는 지난 100여년 동안 사회봉사와 국제봉사에 큰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려 헐벗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현실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최 우선의 과제로 우리 눈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민의식에 사로잡힌 우리 로타리안들은 팔을 걷어 부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과 세계경제가 많이 발전되었고 또한 정부도 많이 부강해져 사회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도주의적 봉사를 할 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더 낮은 곳을 향해 우리의 힘

을 집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 로타리의 목적인 로타리 강령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타리강령에 의한 우리 로타리안들의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직업봉사를 통해 사회적 존재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은사를 클럽활동에 적용하여 클럽봉사에 열중하면서 로타리조직을 잘 활용하여 인도주의적 지역봉사와 국제봉사를 이루어 나가고, 또한 미래 사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들 위한 봉사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타리 봉사의 순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눈을 돌려 로타리강령이 주문하는 직업봉사에 더욱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가 왔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시대적 봉사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기부

우리가 로타리봉사사업을 위해 기부를 하는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행복이라 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을 기부할 때 엄청난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한 기쁨은 오직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는 로타리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구를 위해 기부하는 것입니다. 로타리는 오직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랑을 그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도 우리며, 또한 그 통로 자체도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타리에 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게 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의 궁극적 대상은 오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전세계에 펼쳐나가고 있는 봉사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부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부해야 할 이유 다섯 가지 (5개)

우리의 축복과 능력은 나눠 줄 때에 그리고 나눔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존재가 현실화 되고 사회가 그 축복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은 축복과 능력을 가진 자는 오직 물질과 잠재력을 가진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부해야 할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5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들여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이 이어나가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희생되었고 또 희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난 침대부터 시작하여 치약, 칫솔, 비누, 아침식사, 자동차,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 빌딩, 사무실, 식당, 가구, 운동기구, TV, 컴퓨터, 핸드폰, 우체국서비스,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기에 그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3.2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평생 102톤의 쓰레기를 만들어 내어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미안하고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내가 아침에 먹은 과일을 따다 나무에서 떨어져 반신불수가 된 한 아버지의 어린 아들이 가정이 가난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꿈을 꾸어볼 기회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와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 누군가가 부상을 입어 죽어 그 가정이 가난과 병에 허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재단기부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주고 싶으니까: 우리 로타리안들은 사회적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로타리안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즉 이 세상을 좀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계에 흩어진 로타리안들이 힘을 합하여야 합니다. 소아마비 박멸도 그 예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봉사 프로젝트를 이행하려면 자금면에서 그리고 집행면에서 우리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세상을 떠날 때 어차피 모든 것을 두고 떠납니다. 후손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받은 재산의 일부라도 사회를 위해 두고 떠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이세상을 향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못 이룬 봉사의 꿈을 타인에게 혹은 후세에게 부탁하는 의미에서 자산의 일부를 남기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로타리안들의 봉사의 꿈을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모든 자선행위는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 나의 것을 나눈 만큼 우리는 더욱 행복해 집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마약과 같이 주면 줄수록 더욱 행복해지기에 기부 자체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인생에 있어 나만의 행복문화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타리안들입니다. 그냥 로타리안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진 행복한 로타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은 먼저 나 자신이 로타리강령과 4가지표준을 준수하면서 나의 직업과 기업활동의 사회적 공헌가치를 높일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위해 여러 봉사에 참여하고, 또 내게 주어진 축복과 능력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로타리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데 꼭 필요한 아름다운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인 자원봉사조직입니다. 우리모두가 최선을 다해 재단기부에 참여합시다.

“우리의 축복과 능력은 나눠 줄 때에 그리고 나눔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존재가 현실화 되고 사회가 그 축복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은 축복과 능력을 가진 자는 오직 물질과 잠재력을 가진 자일 뿐입니다.” ☺

하루에 3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나누실 수 있으신가요?



당신도 PHF 기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기부

RID3650 LOVE VITAMIN



PHF

Energizer TM

하루에 커피 한 잔의 나눔



행복한 기부

Rotary Social Enterprise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 03

기술로 전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공헌기업의 역할

KCC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정섭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 전문기업

상상을 현실로!

ICT 혁신을 통한 편리한 세상

KCC정보통신은 196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SI기업으로서 지난 50여 년간 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주용 회장이 1967년 컴퓨터 판매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전자계산소(Korea Computer Center)를 설립 하면서부터 현재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IT전문가라는 수식어를 남기며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KCC정보통신은 1967년 5월 국내 최초의 고성능 컴퓨터인 'FACOM-222'를 도입했다. 1976년 국내의 주민등록번호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981년 10월에는 철도 승차권 예약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KCC정보통신은 SI전문기업이라는 수식어 외에 또 다른 수식어를 가진다. 바로 IT인재 양성소다. 1968년 정부 전자정보처리시스템(EDPS)요원들을 훈련 시키면서부터 시작된 국내 IT인재 양성 활동은 1993년 KCC정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내에서 IT인재를 배출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냈다. 현재는 금융·공공·국방·통신 등 가장 뛰어난 기술 분야에 주력해 고객에게 최고의 S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도 기준 매출 천억 원을 돌파하며 벤처 천억 클럽에 가입되었으며, 최근 2017년도 10월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 하였다.

KCC정보통신은 국내의 유망 IT업체는 물론, 방송·통신사업자와 손을 잡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인간의 행복을 위한 디지털토피아 건설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CC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핵심 가치는 인재(Human), 고객(Accompany), 열정(Passion), 신뢰(Promise), 실용(Yield) 등입니다. 각 핵심가치의 머리글자를 따면 'HAPPY'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 '행복'이 KCC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KCC정보통신은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으로서 기술로 인류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사회공헌 활동

KCC 정보통신은 이미 회사 내부에 봉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많은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에 동참하여 직원들도 로타리안이 되어 더 뜻 깊은 사회적 공헌을 펼치고자 한다.

애란원 바자회 봉사활동 |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애란원은 '사랑을 심는 곳'이란 의미로 미혼모 생활시설로서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숙식 보호, 상담, 교육 등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평화의 집 | 경기도 양평군 양동읍 소재의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매년 겨울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김장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알로시오 초등학교(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봉사활동 | 코암로타리와 이콤포사단(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 봉사모임)이 공동 진행하는 봉사 활동에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다.

빛나라 공부방 아동 후원 | 빛나라 공부방은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KCC정보통신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2회 영화 관람 및 물품과 금전적 후원을 하고 있다. 사내 봉사동호회인 '이웃사랑 동호회'는 빛나라 공부방 후원 및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 외, 사랑의 달팽이(청각장애인)에 인공와우 수술지원, 지구촌교회(이주민)를 위한 매주 셋째 주 수요일 식사준비 및 배식, 한국코드클럽(청소년대상 교육)의 쉽게 배우는 S/W교육 지원, 강서구 문화센터(관내 기초보호생활)에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 김장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



▶ KCC홀딩스 이상현 부회장(코암로타리클럽)과 KCC 임직원들, 장세호 총재, 김중 사무총장, 황순신 편집위원장

모두가 행복한 회사 | 임직원 행복지수 1위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회사 | 고객만족도 1위

모두가 자랑스러운 회사 | ICT분야 기술력

가족사 현황

KCC홀딩스 • 종하E&C • KCC모터스(HONDA) • KCC오토(Mercedes-Benz) • 아우토슈타트(PORSCHE) • KCC오토모빌(Jaguar LandRover) • 플러스렌터카 • 플러스오토 • 종하장학회